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운전하거나 지하철을 탈 때, 일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심지어 잠을 잘 때까지 늘 곁에 두는 물건이다.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 디지털기기 하나로 삶의 풍경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

글·사진 김효정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다





여주시립 폰박물관

신호에서 목소리로, 전화기의 탄생

커다란 무전기과 스마트폰, MP3 뮤직폰 조형물이 건물 외벽 한편을 장식하며 시선을 끈다. 여주시립 폰박물관은 전화기에 관한 다양한 유물과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국내 최초 자석식 전화기부터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까지 전기통신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한다.

2016년에 개관한 박물관에는 5,300점 이상의 국내외 전화기를 소장·전시하고 있다. 조용한 적막이 흐르는 공간에 진열된 다양각색의 전화기를 보고 있으니,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이 교차한다. 어디선가 익숙한 전화벨 소리가 울릴 것만 같다.

상설 전시장에서는 '전화기로 보는 전기통신의 역사'를 주제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화기가 만들어지기 이전, 소리가 전해지기까지의 신호와 기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통신 수단은 전기적 현상을 매개로 하거나 전기적 기기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1837년 새뮤얼 모스가 모스 전신기와 독자적인 알파벳 기호인 모스 부호를 만들면서 유선 전기통신이 시작되었다. '전화 이전의 전화라 불리는 모스 전신기는 말을 소리로 하기 전, 신호로 생각을 보내던 장치다. 문자 대신 점(.)과 선(-)의 조합으로 뜻을 전달했다. 모스 전신기 등장 이후 사람들은 신호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876년 영국 출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미국에서 전화기를 발명했다. 사람의 목소리 자체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었기에 신호를 해독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다. 벨이 발명한 전화기로 인류의 소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전신이 공적인 정보 전달에 주로 쓰였다면, 전화는 사적인 영역을 파고들었다. 가족의 안부, 연인과의 약속, 지인의 소식이 전화기를 통해 전달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레이엄 벨보다 앞서 음성 전송 장치를 실험한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출신 안토니오 무치는 전화의 개념을 먼저 구현했으나 특허를 완성하지 못했고, 벨은 이를 실용화해 사회에 정착시켰다.

WORLD FIRST & ONLY MOBILE MUSEUM



기다림의 통신사, 한국 전화의 시작

우리나라에 전화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82년이다. 청나라에서 전기 기술을 배우던 조선의 유학생 상운이 전화기 2대를 가지고 온 것이 시초다. 그러나 실제 전화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 후반이었다. 1896년 덕수궁에 설치된 전화는 곧 관청 간 통화를 가능하게 했고, 1898년에는 공식적인 통화 기록이 남게 되었다. 일반인이 전화를 사용한 것은 1902년부터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전화선이 개통되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소, 즉 공중전화가 등장했다. 전화소에서 사람들은 통신원의 도움을 받아 통화를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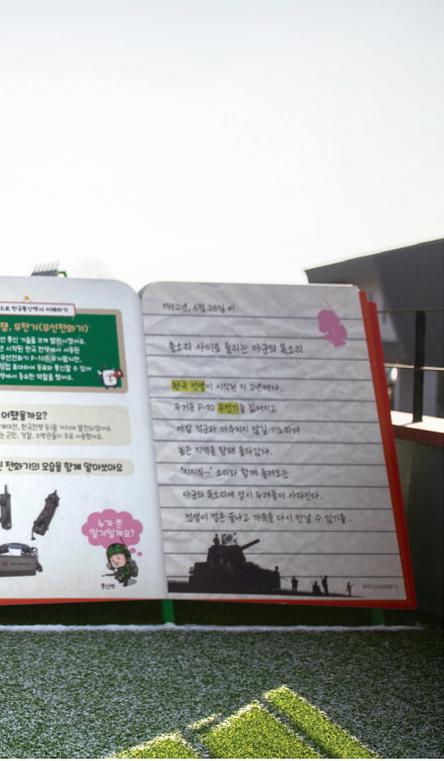
이후 전화는 점차 관청·기관에서 개인 가정까지 확대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각 집안에 전화기가 사용되었는데, 전화가 있는 집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전화 시설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1960년 후반부터 1970년대 주택용 전화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전화 가입 신청을 해도 1년 넘게 기다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카폰도 유행이었다. 카폰은 자동차에 전화 장치가 부착돼 차량 내부에서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는 차량용 무선 전화기로, 가격이 자동차보다 비싸 부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당시 카폰을 사용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은 무려 400만 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1990년대 시대를 풍미한 무선호출기(삐삐)와 시티폰, 동전과 카드를 넣어 사용하던 공중전화 등 추억 속 통신 기기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손안에 담긴 한국 통신의 시간

통신의 강국답게, 우리나라 휴대전화의 눈부신 발전사 역시 빠질 수 없다. 전시종 중앙으로 1880년대부터 2012년까지 한국 통신사 타임라인이 펼쳐진다.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 방식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



서 한국 통신기술은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했다. 통화품질의 개선은 물론이고, 거대하던 단말기는 휴대하기 좋을 정도로 크기가 작아졌다. 폴더폰과 슬라이드폰이 등장하면서 휴대전화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되었다.

카메라와 MP3, DMB, 컬러 LCD와 같은 기능이 더해지며 휴대전화는 개인의 취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개가 되었다. 2009년 이후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며, 휴대전화는 금융과 업무, 문화를 담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야외 전시장으로 향하면 '전화기 탐정단'이라는 테마 아래, 구역별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 이어진다. 전시는 전화기를 통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일기장 속 전화기 주인공을 찾는 체험형 전시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관람을 즐길 수 있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휴대전화 박물관에서 오래된 추억 하나를 끄집어내 본다. 휴대전화기 없던 시절, 한 통의 뽀뽀 문자는 어린 마음을 한없이 설레게 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른 채 '1004(천사)', '486(사랑해)', '17171771(LUV U)' 같은 숫자 암호 하나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기억. 빠른 것이 미학이 되어버린 지금이야 이해하기 어려운 감성이겠지만, 기다리는 시간만큼이나 애틋했던 아날로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런 오래된 감성이 그리울 땐, 여주시립 폰박물관을 찾아가도 좋겠다. 📞

info.

여주시립 폰박물관

<https://www.yeouju.go.kr/phone/index.do>

관람시간

3월~10월 : 09:00~18:00
11월~2월 : 09:00~17:00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

관람 요금

어른 3,000원
청소년 및 군인 2,500원
어린이 2,000원

관람 문의

031-881-9760

주소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5(연양동)

